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

- 「과학기술 우대.부흥」을 국가 최우선 Agenda로 -

우리나라에서도 공학계열 학생 지원 감소는 최근 5년 사이에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신기술 및 인력 확보에 적신호인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정부에서 부처간에 협조를 통해 7/22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본 학회에서는 지난 호 (제9권 2호: 공학계열 학생 감소 원인 및 대책이란 좌담회와 5개의 소원고)에 이어 정부에서 내놓은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을 특집으로 실으려 한다. 의미의 전달에 있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정부에서 기획한 내용을 수정 없이 수록한다.

〈편집자 주〉

I. 추진 배경 및 경위

□ 추진 배경

-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경제가 세계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에 우수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절대적임
- 따라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시정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임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육의 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자의 사회진출후 처우와 직업안정성을 타 부문에 비해 우위에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 착수한 것임

□ 추진 경위

-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 국무회의 보고(01.12.26)
-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공동으로 중

- 합대책마련 보고
- [과학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과학기술부장관) 구성(02.1.5)
 - [초중고 과학교육 내실화] 등 5개 전문분과별 방안 마련 착수
- 기본방향 인적자원개발회의 상정, 검토(02.3.2/3.20)
 - 교육부, 과기부 등 12개 부처 공동(실무조정회의2.8, 본회의 3.2)
- 안전 초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과학기술부장관) 보고('02.4.18)

- 심화되어 수능 자연계열 지원자수가 감소하고, 주요 이공계 대학 경쟁률이 하락
 - 수학능력시험에서 이공계 지원자수는 97년 34만 5천명(43.4%)에서 02년 19만 9천명(26.9%)으로 5년간 16.5% 감소
- 특히, 수능 우수학생들의 이공계열 선택 저하
 - 우수한 학생은 의학계열로 진학하고, 이공계 박사학위과정 경쟁률이 날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
- ※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장래 국가 과학기술인력 확보 차질은 물론,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

II. 청소년 이공계 기피 현황 분석

2. 이공계 기피현상의 원인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갈수록

□ 사회 경제적 요인

- 사회지도층의 문과우대 풍조가 여전하고 의

기본 구도

1. 초·중등 과학교육

- 초·중·고 과학교육 강화와 영재교육체계 구축
- 대학별 학생선발 방법을 개선
- 과학문화사업을 확대,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토양을 배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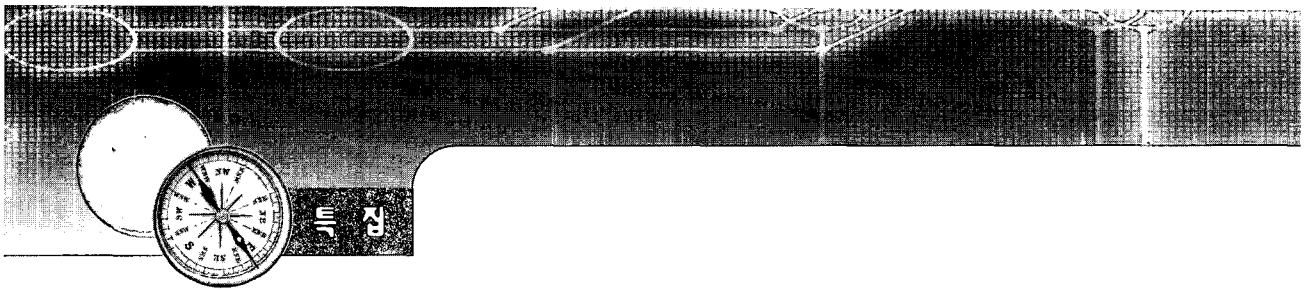
2. 이공계 대학교육

-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이공계 대학 교육체계 구축
- 이공계 학생들의 연구능력 배양과 우수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인센티브 제공

3. 사회진출 이후 비전 제시

- 과학기술자가 긍지를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
- 처우개선 등 사기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제고

- 중장기적으로 과학기술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job opportunity)과 직업안정성(job security)을 제고하고 획기적인 처우개선 유도
- 청소년 과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우수한 과학기술자를 양성하고, 이들이 사회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과학기술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 ➔ 양질의 인력 → 기술혁신 → 경제성장 → 일자리창출(수요 확대)



특 점

사, 변호사 등에 비하여 경제적 대우도 미흡
 - 소득 : 변호사 250, 세무사 190, 출연(연) 연구원 55백만원

※ 상위권 고교생 선호직업 : 의사, 교수, 변호사 등

• 과학기술계로의 유인책 및 보상 부족

□ 초·중등 교육적 요인

- 수학 과학과목에 대한 학생의 흥미유발 미흡
 - 입시중심 암기위주의 과학교육과 학교 실험실 부실, 다양한 과학체험활동 기회 부족
- 학교 교육과정에서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
 - 시·도교육청 평가점수 총 500점중 [과학 교육진흥]은 2점에 불과

□ 이공계대학의 교육적 요인

- 교수, 장비, 연구비, 장학금 등 열악한 연구 인프라 및 인센티브 부족
- 산업계 수요와 이공계 대학교육간의 연계성 부족

Ⅲ.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

1. 초 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과제 1] 초·중·고등학교의 수학·과학교육 강화

□ 쉽고 재미있는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 수학·과학 흥미도를 고취하기 위하여 과학적 원리를 쉽게 설명하는 각종 보조교재 개발.

보급

- 특히 IT, NT, BT 등 현대 첨단 기술수요와 관련된 주제 중심의 수학 과학 보조교재를 중점 개발

- 제7차 교육과정 과학교과 실험을 상세히 설명하는 교사용 실험실습 참고교재 개발 보급

□ 수학·과학 과목 담당 교원, 전문직원 등의 전문성 제고

- 교사 지망생들의 자연과학 배경 강화
 - 교대에서 자연과학 관련교과 비중 강화 및 실험실습 내실화 추진
 - 사범대 과학교육 계열 학생 선발시 고교에서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과학교과 이수정도 반영 권장
- 과학교사의 과학소양 및 전문성 신장
 - 과학 전담교사 배치(초등) 및 과학부장제 유지 적극 권장
 - 과학담당 교사 연수방법 개선 및 교수방법론의 확산 공유
 - 교과별 과학교사 단체의 자체연수, 교재 개발 활동 지원
 - 과학담당교사의 과학교육연구와 탐구활동을 지원
-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제정·시행하여 우수 과학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연구를 장려
 - ※ 미국 : 대통령이 시상하는 The Best Teacher Award 시행
- 과학담당 장학사, 관련 전문가의 전문성 신장
 - 담당 장학사, 평가 등 관련 전문가의 연수 등 확대 실시

□ 학교 교육과정에서 과학교과 위상 강화

- 수학, 과학교육 성취도에 대한 정기적 평가. 검증으로 교육의 질 관리
 - ※ 미국의 경우 2→5→8→12학년에 시행 (「Project 2061」)
-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교생의 과학교과 선택 확대 및 학습촉진 방안 강구
 -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 반영되도록 추진
-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과학 부분 평가 배점 상향 조정
 - '03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중점 평가 부분으로 반영
 - ※ 01년도의 경우 과학부분 배점 : 총 500 점중 2점(정보화의 경우는 80점)

□ 과학실험실 확충 및 실험실습여건 강화

- 과학실험실습실 현대화 추진
 - 07년까지 5년간 연차별로 실험실 현대화 및 과학실험교구 확보 추진(Matching-fund 형태지원)
 - 과학교구 확보율 100% 추진(현 확보율 70%대)
 - ※ 과학실험실 표준모형 및 교구기준목록 연구 개발중
- 과학실험 지원인력 확충 방안 강구
 - 퇴직 과학기술자, 공익요원 등 배치

□ 과학교육 전문연구기관의 육성 검토

- 과학교육의 내용, 방법, 평가 연구, 학습방법 및 교재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학교육전문연구기관 지정, 육성
 - 과학교육진흥법 제6조에 의한 과학교육 연구기관으로 지정

- 시·도 교육과학연구원 및 출연(연) 등 전국 과학교육 관련기관을 과학교육지원 센터로 육성하고, 상호 네트워크 구축
 - ※미국: National Center for Improving Student Learning and Achievement in Mathematics and Science 설치 운영
 - ※태국: Institute of Promoting Science Teaching을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과학교육에 막대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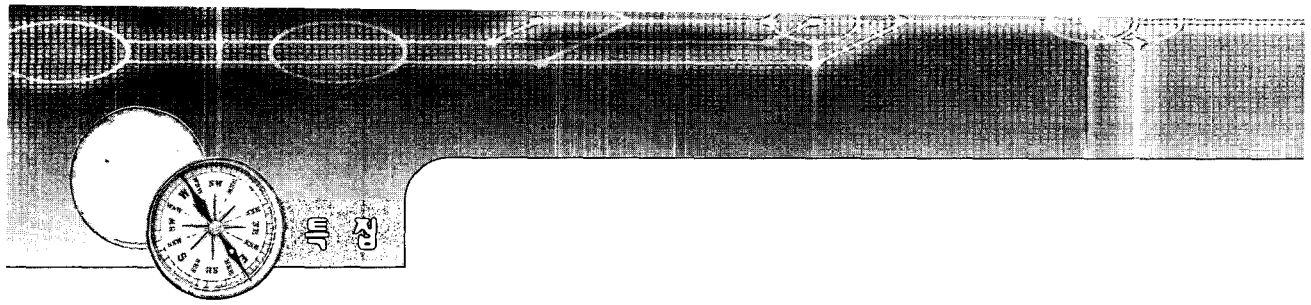
[과제 2] 과학영재교육 체제 구축 및 우수과학도 지원강화

□ 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

- 부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전환(01.10 선정)
 - 교육장비 지원, 전자교재 개발, 신입생 선발 등 준비, 개교(03.3)
- 나머지 과학고도 인프라 지원후 영재학교 운영성과, 국내수요와 여건에 따라 단계적 전환 검토

□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

- 방과후, 방학중, 주말 등 다양한 형태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 초·중·고 각급 학교에 영재학급, 시·도 교육청 및 대학 등에 영재교육원 설치
-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우수 영재교육기관 평가 지원으로 우리 현실에 적합한 영재교육 모형을 정착
 - 영재학생 판별도구, 교수-학습 자료, 교원 양성 등 인프라 구축 중점 추진



□ 과학영재교육(기관)과 이공계 대학간의 연계성 확보

- 과학영재학급/교육원 → 과학영재학교 → KAIST 등 이공계 대학으로 이어지는 영재 교육 지원체제 구축
 - 창의성, 잠재능력 중심으로 학생 선발
 - 과학고 및 영재학교 졸업생에 대한 KAIST 와 기타 대학의 특별전형 확대 유도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과학전람회 등 국내외 과학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해 특별전형 등 지원을 강화

□ 우수 과학도에 대한 [대통령과학장학생] 제도 운영

- 수학, 과학성적이 우수하고 교내외 과학활동이 탁월한 우수 고등학생을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발
 - 대통령 장학생서 수여 및 이공계 대학 입학특전 부여 등 검토
 - 해외에서 수학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소수에 대해서는 국비유학 지원 검토

[과제 3] 교차지원 등 대학별 학생선발방법 개선 권장

□ 대학의 교차지원 자제 적극 권유 (03-04년)

- 교차지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교차지원 허용억제를 적극 권유하고 대학평가, 연구비 지원평가 등에 반영
- 자연계열 응시생이 입시에 불리하지 않도록 동일계열 지원시 우선 선발 가산점 부여, 수

능등급요건 완화 등 선발방법 개선 유도

□ 2005년 이후의 입학제도 개선방안 검토

- 어려운 교과를 선택한 학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점수산출방법 마련(정책연구 수행중)
- 대학의 모집단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학 과학 최저학력기준 설정을 권장(현재 시행중)

2. 이공계 대학교육의 내실화

[과제 4] 산업과 연구수요에 맞는 이공계 교육체계 구축

□ 수요에 맞는 이공계 교육과정 확산을 위한 이공계 대학의 역할 모델 정립

- 산업체 수요에 맞도록 교육과정의 획기적 개선
 - 4년제 대학 및 학회에 교육과정 개선 관련 연구사업 지원
- 첨단분야 학제간 복합연구분야에 대한 고급 인력양성 프로그램 추진
 - 학제간 복합연구분야 전공 대학원과정 개설 유도 및 이를 시행하는 대학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 우선 KAIST와 같은 2-3개 우수대학을 집중 지원해서 시범기관으로 육성
- CEO와 관리직에 과학기술인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
 - 이공계 교육과정에 경영학, 관리학 등을 포함하여 교육
(※대통령 지시사항 - 2002. 6. 26, 경제 장관 간담회시)
(예) S대 공과대학의 경우 학생이 연구자,

- 관리자, CEO 등 미래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업 CEO의 대학 출강 지원(02년 100명)

□ 이공계 대학교육 인증사업 활성화

- 현장 맞춤형 이공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학을 각종 전문가 단체 등에서 인증하고 인증된 대학에 대해 기술자금지원 우대 등 지원
- 공학분야 : 한국공학대학교육인증원 운영중

□ 출연(연)을 활용한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 과학기술계 출연(연)들이 지난 30여년간 쌓아온 연구노하우,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 장비 등 첨단 연구환경을 활용하여 신생융합기술분야 고급인력(석·박사 학위자) 양성
- 기존대학 인력양성과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한정된 분야의 소수정예 현장중심인력 양성
- ※ 예시: 나노재료/소자기술, 마이크로시스템, 유전체정보학, Intelligent HCI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등
- 관계부처간 협의체를 구성, 「출연(연) 연합대학원」 설립·추진

[과제 5]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능력 향상

□ 학제간 공동연구 활성화

- 전 학문분야를 대상으로 2인 이상 산·학 연구주체가 공동 참여하는 산·학 협동연구를 지원
- 학제간, 산학연 연구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로 활성화 유도

- 국가전략분야 기술융합 선도 연구개발 능력 향상
- IT-NT, IT-BT, IT-메카트로닉스를 접목한 산학연 공동연구 추진

□ 대학교수의 창의적인 연구 지원 확대

- 대학교수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창의적 연구를 확대 지원
- 현재 연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우수 교수들에 대한 창의적 Seed형 연구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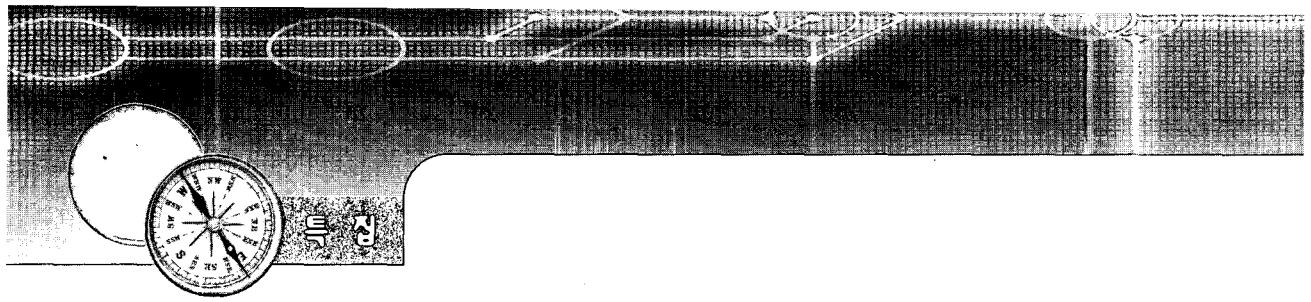
□ 석·박사 및 학부과정 학생연구능력 강화

- 석·박사과정 학생 소규모 연구팀에 대한 연구비 지원
- 대학원생 단기 해외연구 확대
- 현재 BK21 지원대학에 주어지는 단기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
- 학부생의 방학중 국내 기관방문 연구활성화
- 현재 일부대학이 시행중인 '연구시설 개방 프로그램'을 희망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확대 시행

[과제 6] 우수 이공계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확충

- 대학·대학원의 이공계열 입학·재학자 중 기초과학분야 및 전략분야, 기간산업분야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 확충
- 국고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활용 검토
- ※ 이공계열 등록금이 인문·사회계에 비해 높아 학비 부담



- 기초연구사업 지원연구비를 활용, 이공계 대학생(3-4학년)을 연구조원으로 활용시 연구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 시행
- 이공계 우수 여학생 장학금 지급 및 여학생 친화적 과학프로그램 확산을 통해 여학생 이공계 진학 유도
- IT분야 대학생 유학 및 해외연수 지원
 - 국내 IT분야 우수인재가 MIT 등 해외 선진대학에서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02년 70명)
 - 국내 대학(원)생이 미국 등 우수 IT 교육 기관, 업체 등에서 IT 교육 및 인턴십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02년 1,100명)
- 기간산업분야 우수 공과대학생의 해외유학을 지원하고 귀국시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연계

□ 이공계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확대 및 제도 개선

-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추진 협의 : 현행 5년 → 4년
- 이공계 석사배출 규모와 산업체 수요를 고려해 전문연구요원 정원조정
- 벤처기업에 편중된 배정인원을 제조업분야 연구기관에 균형 배분
-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전직제한 규정을 완화
 - 2년이내라 하더라도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직 허용

이공계 과학교육발전위원회와 과학교육전문기관에서 초·중등과학교육과 이공계 대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안건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음

3. 사회진출이후 비전 제시-과학기술자 사기진작

기본 방향

- ▶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를 높이고,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보상체계 확립
- ▶ 과학기술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부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과학기술자로서의 비전을 제시해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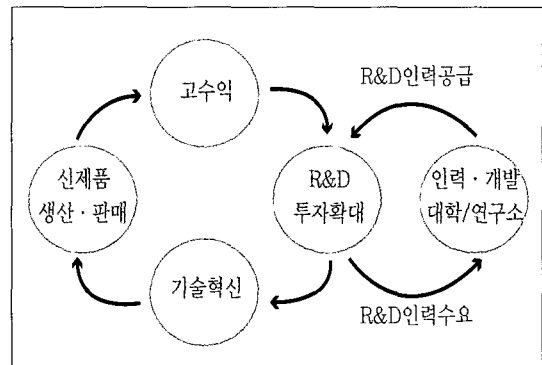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조사한 5대 사기진작방안

- ①사회적 우대풍토 조성 ②연구원 소득공제 확대 ③정부지원 해외연수 확대 ④연구원 정년보장제 ⑤연구원 연금제도

[과제 7] 과학기술전공자의 일자리 창출

□ 인력개발, R&D, 혁신제품 생산의 선순환 Loop 확보

- 기술혁신 ⇒ 고수익창출 ⇒ 고급인력수요창출 ⇒ R&D투자확대



□ 민간연구소의 기술혁신 Cluster 구축을 통한 공통 애로기술 도출, R&D 활성화, 박사급 인력 수요 증대

- 산업계의 고급과학기술인력 수요확대 및 활용증대를 위해 1만여개 기업연구소를 분야별로 연구그룹(연구 Cluster)화하고 이를 육성
 - 특화된 애로기술 발굴 지원, 연구원의 소득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확대 등 조세감면 지원시책 확대
- ※ 참고 : 인구 1만명당 대학, 민간, 공공부문의 이공계 박사인력 수

	학계	정부/공공	산업계	합계
한국(2000년)	76.2%	12.3%	11.5%	100%
	(7.4명)	(1.3명)	(1.1명)	(9.8명)
미국(1999년)	46%	9.3%	44.7%	100%
	(10.6명)	(2.1명)	(10.3명)	(23명)

□ 정부출연연구소의 인력 저수조 (Reservior) 기능 강화

- 미래 민간부문의 박사급 고급인력 수요확대에 대비해서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일정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후 민간부문으로 수혈하는 인력 저수조 기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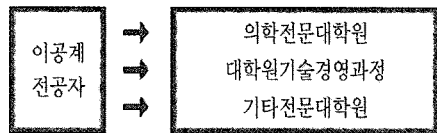
□ 과학기술 전공자의 공직진출 확대

- 과학기술 전공자의 공직채용규모 확대
 - 기술고시 채용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 과학기술분야 학위소지자 및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 제도 확대운영
- 기술직/행정직 복수직위제에 대한 개선
 - 기술직/행정직의 복수직위에 임용되는 기술직의 비율이 저조한 부처의 기술직 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 행정에 있어 과학기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 직렬구분, 시험과목, 교육훈련 등

□ 전문대학원제 또는 전문교육과정 활성화를 통한 과학기술 전공자의 사회진출 확대

- ‘학사+4’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를 2003학년도부터 도입하되, 전환여부와 시기는 대학이 자율 결정
- 과학기술 전공자의 사회진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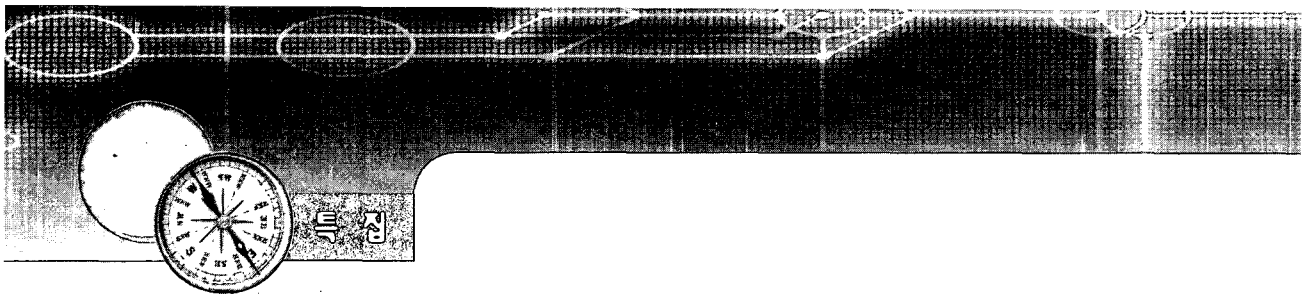


- 기초 의과학 연구능력이 있는 의료인
- CTO/벤처경영인
- 기타 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분야

[과제 8] 과학기술자의 처우 및 직업 안정성 향상

□ 연구원의 처우 개선

-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자가 다른 부문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출연(연) 연구원의 성과급을 수월성 위주로 확대하여 우수연구원의 보수를 크게 증액
 - 재원 : 연도별 결산인여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간접경비, 기술료 수입 등
- 영년직 연구원(Tenure)제도 도입
 - 일정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출연(연) 연구원에 대하여 정년보장과 함께 높은 수준의 처우 보장



□ [연구원 연금제도] 도입

- 출연(연) 연구원들의 노후보장제도는 「국민연금 제도」와 「퇴직금 제도」가 있으나 국가 사회적 역할에 비해 노후보장이 미흡
- 「출연(연) 연합대학원대학」을 설립하여 교수 요원과 연구요원의 사학연금 가입 추진

□ 출연(연)의 연구 안정성·유연성·창의성 제고

- 정부가 작성하고 있는 NTRM(국가기술지도) 중심으로 출연(연)의 전문적이고 심층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직접 출연금 지원 비율을 제고
 -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경영제도 활성화
- 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정부의 직접 출연비율을 증대하여 인건비의 안정성 제고

〈 예시 : 정부지원비율 50%의 경우 〉

구분	2002년도
정부지원연구비	6,029억원(42%)
정부지원인건비	1,425억원(39%)
2003년도	증액규모
→ 7,214억원(50%)	1,185억원
→ 1,846억원(50%)	421억원

※ 국무조정실 및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 중 ETRI, 원자력(연), 원자력병원, 과학재단, 보안기술(연)을 제외한 23개 기관 대상

□ 연구원 고용 안전망 구축

- 기업체에서 퇴직한 연구원의 재충전을 위한 재교육 재취업 프로그램 설치 운영
 - 정부출연(연)의 연구사업에 일정기간 참여를 통해 재충전
 - 퇴직과학기술자들을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신기술개발과 상업화, 과학기술 정보 유통사업 등에 활용
- 실직 및 퇴직연구원을 위한 「연구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여 신속한 재취업 지원
 - ※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자의 활용을 극대화

[중장기 검토 추진과제]

□ [과학기술인 공제회] 설립

-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금융기관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과학기술인 공제회」 설립 추진
 - ※ 연구원의 개인연금 또는 기업연금 가입을 통한 노후보장 강화 병행 검토

[과제 9]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우대

□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 제도 도입

- 우수한 과학기술업적을 이룩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과학기술자를 국가가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으로 선정하여 예우
 - 대통령이 친수하는 증서와 함께 매월 300만원의 공로금 종신 지급, 매년 연구장려금 1억원 지급, 명예의 전당에 업적전시 등 혜택 부여

- 규모 : 매년 약간 명
- 재원 : 과학기술진흥기금

□ 「과학기술 명예의 전당」 설치

- 우수 과학기술인의 사진, 연구개발 성과물, 논문, 저서 등 업적자료를 전시하는 [과학기술 명예의 전당] 마련
 - 2006년 완공예정인 수도권 국립과학관내에 설치
 - 2002년 하반기에 국립서울과학관에 시범 설치

□ 「올해의 최고기술경영인상」등 제정 시행

- 이공계 출신으로서 기업경영 성과가 탁월한 최고경영자(CEO), 연구개발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기술경영인(CTO) 포상 격려

[과제 10] 과학기술자 복지증진 인프라 구축

□ 「과학기술 창조역의 전당」 건립

- 대덕연구단지내 산·학·연 연구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교류의 장과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시설
 - 연구단지 역사관 및 홍보관, 벤처기업 연구실 등
 - 2002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설계 추진 중

[중장기 검토 추진과제]

□ 「과학기술문화회관」 건립

- 수도권의 과학기술문화 활동 활성화 및 과학기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기능의 공간

마련

- 컨벤션센터, 게스트 하우스(Guest House), 교육훈련 및 편의시설 등
- 재원은 현 과학문화재단 건물매각 대금, 정부지원 및 민자유치

□ 「과학기술인 휴양촌」 건립

- 과학기술인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시설
 - 연수 및 휴양시설, 실버타운, 과학기술인 추모공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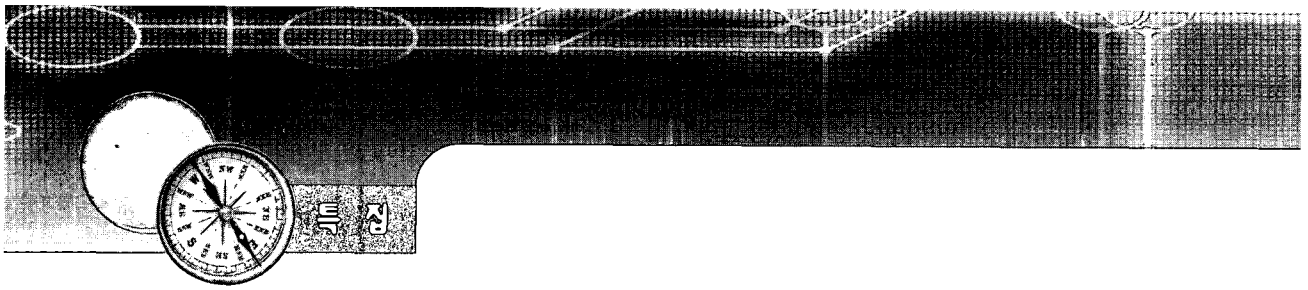
[과제 11] 과학기술 친화적 사회풍토 조성

□ 스타과학자 부각,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과학진로 비전 제시

-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스타과학자] 캠페인 전개
 - 성공한 이공계출신 교수, 연구원, 기업 CEO 등을 집중 조명하는 광고 영상물 및 TV프로그램 제작 추진
- 과학기술자 직업전망 홍보자료 제공
 - 이공계열 직업전망 및 진로지도 자료를 개발, 각급 학교에 배포
- 위인전, 과학만화 등 과학관련 출판·영상물 개발·보급 확대
- TV 등 언론매체에서 과학기술분야 편성 확대

□ 과학기술자-청소년 연계 사업 추진

- 우수 과학기술자를 과학사절(Science Ambassador)로 위촉하여, 청소년 과학기술 사사(Mentoring) 프로그램 실시
 - 학회, 연구소, 대학 등이 중심이 되어 참여
 - 과학 대중강연, 각급 학교 방문강연, 방송



출연 등을 수행

□ 청소년 과학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 대학, 출연(연), 학회, 교사모임 등을 통한 '과학교실' 확충
 - 과학축전, 경진대회, 체험교실, 과학대중

강연, 과학방송, 과학교사 연구대회, 국제 과학교육교류, 과학 사랑방(Science Cafe)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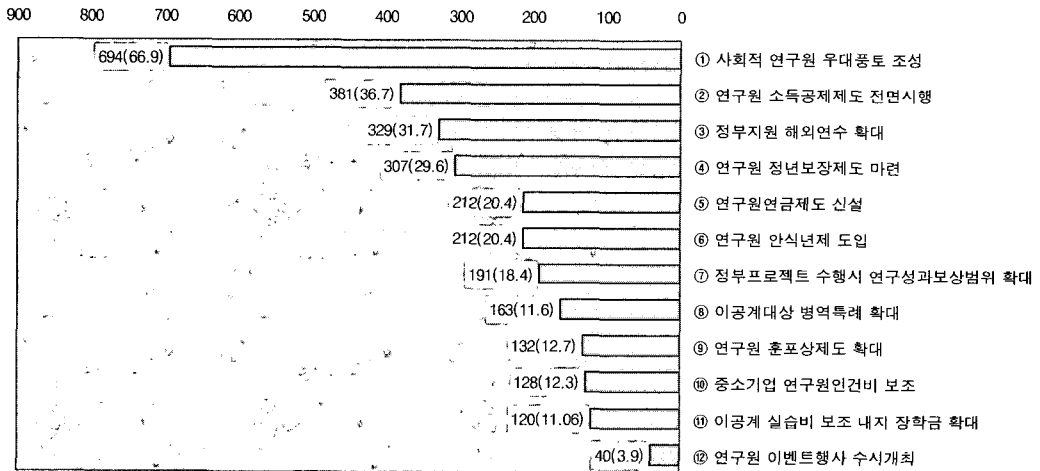
- 청소년 과학활동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 과학반/과학클럽 활동, 과학캠프 지원 확대 및 전국 네트워크 구축

〈참 고〉

산업계 연구원이 원하는 사기진작방안

□ 연구원 사기진작 시책(복수응답)

(단위 : 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발표(2002. 7. 2)

□ 주요시책 세부내용

- 연구원 우대풍토 조성
 - 과학기술 대중화사업 및 과학계몽운동의 적극추진
 - 현장학습 및 현장연계 실무교육 강화를 통한 이공계 대학(원) 교과과정의 수요맞춤형 전환
 - 인턴연구원제 내지 이공계취업 활성화대책 마련
 - “과학교육력 향상을 위한 고교교육과정의 개편”, “이공계 대학(원) 진학생 우대지원 제도의 확충” 등 교육제도의 개혁
 - 산업계 연구원 재교육프로그램(해외연수제도 포함) 확충
 - 국가공무원 임용시 이공계 출신자에 대한 우대조치
- 산업계 연구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확충
 - 산업계 연구원 소득공제제도 시행
 - [과학기술자 공로연금제도]의 수혜대상에 산업계 연구원을 포함 등